

특집!! 하루가 간다!!

~한국 시찰단 유스하라 정 방문~

오늘은 2017년 6월 1일, 한국 전라남도의 임업·건축 관계 시찰단 여러분이 유스하라 정을 방문해주셨을 때 모습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하라 정에서는 1997년부터 연수를 받으러 오는 한국 대학생들이 지역 주민들과 교류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연으로 이번 유스하라 정 시찰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구보타니 산림 테라피로드, 한국과의 교류의 결과물인 한국풍 레스토랑, 구마 겐고 씨의 목조 건축을 시찰한 뒤 정장님과 대화도 나눴습니다.



하루

구보타니 숲 산림 테라피로드

산림 테라피로드를 산책하면 산림욕 효과도 있어서, 하고나면 재충전된 느낌이 듭니다. 이 효과가 과학적으로 연구된 몇 안되는 산림 테라피로드가 이 숲에 있습니다. 물길따라 정비된 3km 정도 되는 길에서 여러 식물과 새들의 노랫소리, 폭포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의학 관점에서 산림 테라피를 연구하고 있는 기보 의사선생님과 테라피로드를 관리하며 유지하고 있는 시모모토 씨가 안내해주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한국에서도 산림 테라피로드가 주목받고 있어 매우 흥미롭게 시찰할 수 있었습니다.



구보타니 산림 테라피로드 모습

찜질방과 다카토리 레스토랑

유스하라 정은 1997년부터 한국 학생들이 방문하면서 한국과의 교류가 깊어졌고, 이후 학생들이 지역 여성들과 함께 김치를 만들었습니다. 그후 다카토리라는 지명을 붙여 '다카토리 김치'를 상품화하였고, 다카토리 김치를 사용하는 한국풍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한국과의 교류의 결과 세워진 이 레스토랑은 인근에 위치한 집락활동센터와 함께 지역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레스토랑에서는 평소에 돌솥비빔밥과 나물 뷔페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지만, 이번에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 요리를 담은 도시락을 만들었습니다.

구마 겐고 씨가 설계한 목조 건축

유스하라 정은 도쿄 올림픽경기장 중 하나인 신국립경기장을 설계한 건축가 구마 겐고 씨와 관계가 깊습니다. 구마 겐고 씨가 설계한 목조 건축이 유스하라 정 안에 6동(그 중 2동은 현재 건설 중) 있습니다.

이번에 시찰한 것은 구름 위의 갤러리, 유스하라 정사무소, 유스하라 시장, 이 3 가지 목조 건축입니다.



구름 위의 갤러리



유스하라 정사무소



유스하라 시장

유스하라 정장과의 대화와 FSC 인증목재 홍보

끝으로 유스하라 정사무소에서 야노 정장과 임업담당자들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 시찰단 여러분은 유스하라 정 의 자연 에너지 추진 정책과 목재 이용,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에 대해 질문하였고, 이에 대해 야노 정장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자세히 답변하였습니다.

아울러 유스하라 정 산림조합의 산림조합장이 FSC 인증을 받은 삼나무와 편백나무 목재의 내장재 제품을 보여주며 시찰단 여러분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의견교환회 모습



내장재 제품

시찰단 여러분은 이날을 포함해 3 일간에 걸쳐 고치 현내의 임업과 관련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장소를 시찰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에 일본에서 또 뵙겠습니다.

